

담양군,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위한 업무협약체결

산림청·전라남도·한국수목원관리원과 성공 건립 위해 힘 모아

담양군은 산림청, 전라남도, 한국수목원관리원과 18일 '국립 한국정원문화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박종호 산림청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한국수목원관리원 김용하 이사장, 이계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관이 참석해 국립 한국정원문화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실질적 업무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건립·운영 사업비 확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

진 ▲인력지원 ▲건립 부지 매각·매입 절차 신속이행 ▲부대시설 조성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 등을 담고 있다.

국립 한국정원문화원은 1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만㎡ 부지면적에 정원연구동, 교육실, 온실, 시범포지, 실습장, 전시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한국정원문화원이 완공되면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원 자원을 발굴, 연구하고, 정원 유형별 표준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한국정원의 산업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정원산업의 전초기지 역할과 정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자연을 품은 생태정원도시'를 군정방침으로 체계적인 정원조성을 위한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죽녹원은 지난 2019년 지방정원으로 등록, 지난해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정원 지역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내달 3일까지 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주택수리비 세대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구례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인구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와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수리비와 농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3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주요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행사 등이 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는 세대 당 500만원(보조 400, 자부담 10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의 세대주가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이자

다. 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만 해당(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한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은 개소 당 600만원(보조 420, 자부담 180)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구례=박진호기자



강서록 작가 나른한 오후(도자기작품)



김경학 작가 생명평화(판화작품)



김미경 작가 섬유공예

나주천연염색재단, 50인의 작가가 꾸민 소띠 기획전

예술이 된 소의 모습...31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서 전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은 이달 31일까지 신축된 소띠해를 기념하는 '소띠 기획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이번 기획전은 '소(牛)'를 주제로 목공예, 섬유, 도자기, 지승공예, 팝아트, 압화, 사진예술 등 다양한

장르 작가 50인이 참여했다. 소의 근면 성실하고 우직한 이미지를 반영한 독창적이고도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김광식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신축된 새해를 맞아 열리는 이번 기획전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예술분야에서 소처럼 우직하게 살아가

고 있는 분들의 자화상처럼 느껴진다"며 "부요를 상징하는 소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전 관람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하세요"

빈집 철거비용 100만원 지원... 다음달 19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1년 이상의 미거주 농촌 주택 또는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 철거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70동으로, 신청은 오는 2월 19일까지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성군은 주변 경관과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며,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될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을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곡성군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으로 인해 곡성군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 위로금 10만원부터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곡성군 자전거 단체보험은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1인당 지원금 1만 원 인상...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화순군이 2021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경제 사정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

려운 6세 이상(2015.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다.

자동 재충전은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유

한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는 제도다. 오는 28~29일 충전 완료 문자가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이전인 자 △2020년 전액 미사용자 △복지 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는다.

신규 발급자는 2월 1일부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